

◇ 특 집

유경로 선생 추도사

1. 유경로 선생 업적

1-1. 지구과학 분야

ㄱ. 1959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지학과(후에 지구과학과로 개칭)를 창설하여 정년 퇴임까지 우리나라 지구과학교육의 개척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간 지구과학과 지구과학교육 분야의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

ㄴ. 1963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교육대학원이 창설되면서 교육대학원의 과학교사 교육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ㄷ. 초중등 과학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초중등 과학교사의 재교육 등 초중등 과학교육에 다년간 참여하였으며, 그 업적이 과학교육계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ㄹ. 지구과학교육회를 창설하여 우리 나라 지구과학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2. 천문학 분야

ㄱ. 광복 후 1955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천문학 강의를 서울대학교에 개설하여 천문학 교육을 시작하였다. 1961~1963년에는 미국 Indiana 대학 천문학과에서 천문학과 천체물리학을 전공하고, 1963년에는 미국 Lowell 천문대에서 천문 관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후 귀국하여, 우리나라 천문학 교육의 바탕을 확립하였으며, 많은 천문학도를 양성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ㄴ. 1967년부터 1973년 국립 천문대가 개관할 때까지 한국 국립천문대 건설위원으로서 천문대의 위치 선정 및 망원경 도입 사업에 주력하였다.

ㄷ. 1965년 한국 천문학회를 창설하고 그 후 회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천문학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오늘의 한국 천문학회가 국내외적으로 높이 평가되게 된 기틀을 마련하였다.

1-3. 과학사(천문학사) 분야

ㄱ. 거의 불모지와 다름 없던 한국천문학사 연구상황에서 李殷晟, 玄正峻 교수 등과 함께 1973년에 완성한 <七政算>의 譯註는 세종시대 조선 천문학의 우수성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었으며, 동시에 본격적인 한국천문학사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칠정산>의 역주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천문학사 연구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이다.

ㄴ. 이후 <諸家曆象集>, <天文類抄>, <書雲觀志> 등 우리의 천문학 관련 고전들에 대한 번역 및 해제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국외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번역서 <中國의 天文學>(전파과학사, 1985)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ㄷ. 한국 과학사의 여러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이미 연구를 끝마쳤지만 미처 출판하지 못한 내용들

을 묶어서 '書畧瑣錄'이란 이름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에 발표하였다. 열 개의 항목 하나 하나, 후학들의 공부에 더없이 귀중한 생각들을 남기신 것이다.

ㄹ. 또한 한국과학사학회 회장(1985-1987)을 역임하면서 한국과학사학회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1989년 이래로 동양과학사에 관심을 가진 여러 학생들에게 동양천문학을 전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한문강독 및 동양문화 전반에 걸쳐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2. 추도사

2-1. 한국 천문 고전의 역주 연구에 남긴 커다란 발자취

칠정산 내편은 세종 24년(1442)에 편찬된 역서이다. 원래 고려조에서는 신라 말에 당의 선명력을 받아 쓰다가, 충선왕 때에 원의 수시력으로 바뀌었으나 교식(交食)과 오성(五星)에 관해서는 선명력에 의존했다. 그 뒤 중국에서는 명이 일어나서 종전에 쓰던 수시력을 약간 고쳐 대통력을 쓰게 되었다. 치력은 제왕의 중요 임무이나 한 역법을 오래 쓰면 실제와는 맞지 않게 마련이다. 세종시대는 고려가 조선으로 바뀐 지 이미 반세기나 지났을 때이다. 이때는 국내 질서가 확립되고, 국고도 충실해진 비교적 평화스러웠던 시대이다. 왕조로서는 새로운 역서를 편찬하는 것과 관상(觀象)사업을 충실히 하자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위 글은 1973년에 출간된 『칠정산 내편』의 역주본의 머리글로 쓴 칠정산 내편 해제의 첫 부분이다. 25년 전, 그 때 유 선생은 50대의 한창 일할 나이였다. 이은성, 현정준 두 교수와 홍릉의 세종대왕기념관의 한 연구실에서 거의 매일 같이 모여서 토론과 계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열심이었던 몇 년간의 결실이었다. 직원들이 퇴근할 무렵, 그날 원고를 대강 챙기고, 그들은 곧잘 청량리역 근처의 대포 집에서 그날의 피로를 담소로 풀곤 했다. 그 자리에 나도 여러 번 끼어들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한국과학사와 천문학사, 그리고 역법 계산 문제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그날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용어에 대한 토론도 자주 거듭되었다. 연구실에서의 그들의 작업은 『칠정산 내편』을 번역하고 계산하고 주석을 달고 그림으로 도해하는 것이었다. 15세기의 천문학과 역산학의 용어의 현대적 의미는 결코 알기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중국과 일본 학자들의 관련 연구 서적들을 살살히 읽고 분석해 나갔고, 한문사전을 찾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래도 이해하기 힘든 개념은 『칠정산 내편』 텍스트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역계산 해내는 방법으로 그것이 현대 천문학의 어떤 용어와 맞아들어가는지를 확인해서 찾아냈다.

한문 원문의 줄거리는 유경로 선생이, 술어 하나 하나의 현대적 용어와의 동정은 이은성 선생이, 그리고 첫 계산은 현정준 선생이 해내는 공동작업이 끝없이 계속되었다. 여름 방학, 설 사이도 없이 냉방시설도 없던 시절의 무더운 연구실에서 선풍기를 유일한 벗으로 삼아 한문과의 지루한 싸움은 끝날 줄을 몰랐다. 그들은 칠판에 곧잘 수식을 쓰고 도해를 하면서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였다.

유선생은 특히 중국과 일본 학자들의 연구논문과 저서들을 거의 빠짐없이 읽어 나갔다. 그가 참고했다고 열거한 문헌들은 모두 복사해서 갖추어 놓은 것들이다. 그러한 철저한 공동연구를 통해서 유 선생은 『칠정산 내편』이란 어떤 역서이고, 그 내용은 현대 천문학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알아내려고 애썼다. 그런 연구는 그때까지 아무도 해내지 못한 것이었다. 수시력에 대한 세계적인 일본 학자들의 연구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는 “국역문은 직역에 충실했으나, 이해하기 곤란한 것은

그 뜻이 통할 수 있는 데까지 표현하려고 힘썼다”고 했다. “주석은 각 용어의 정의와 천문학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냈는데, 더러는 역자의 의견이 첨가된 곳도 있다”고 했다.

유선생은 『칠정산 내편』의 역주본이 출간된 뒤 교요포 대학의 야부우찌(藪内) 교수에게 보냈고, 야부우찌 선생은 한자와 도해로 그 내용을 열심히 읽었다. 그는 가끔 나를 만나 자신이 이해한 부분이 우리말 번역과 맞는지를 질문하고 씨빈(Sivin)과 나까야마(中山)와의 수시력 영역을 위한 용어 해석을 의논하기도 했다. 그들의 수시력 역주 연구에도 크게 참고가 된 것이다. 야부우찌 교수는 유선생의 역주 연구를 누구보다도 높이 평가한 학자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나에게 여러 번 유선생의 역주 연구의 중요성을 말하곤 했다. 야부우찌 스쿨의 중견학자들이 유선생을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과제들을 공동연구로 수행해 왔고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 과학사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의 “조선 초기의 과학기술 서적”라는 글에서 그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조선 초기 과학기술서의 연구에서 가장 훌륭한 성과는 1970년에 들어가면서 수년간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칠정산 내편』과 『칠정산 외편』의 역주 작업이었다. 유경로, 이은성, 한정준 세 천문학자의 공동연구로 결실을 맺어 『세종대왕실록』의 번역본의 일부로 1973년에 출간된 이 연구는 높이 평가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업적이다. 조선왕조실록 번역사업의 일환으로 그 속에 묻혀 부각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한국 천문학사 및 문헌 연구에 있어서 최대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유선생의 역주 연구 중에서 또 하나 높이 평가해야 할 업적이 있다. 『증보문헌비고』 상위고의 역주이다. 이은성 교수와 함께 해낸 이 역주 작업은 『칠정산 내편』과 『칠정산 외편』을 끝내고 나서 거의 계속 사업으로 착수하여 1980년 12월에 완성되었다. 상위고가 『증보문헌비고』 맨 첫머리에 실려있는 것은 그것이 하늘의 과학을 쓴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과학 고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고, 따라서 이 역주 결과는 우리 천문학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생전에 두 분의 말에 의하면 이 상위고의 역주 때에는 『칠정산 내외편』에 비하면 별로 고생은 없었다고 한다.

상위고 역시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간행한 『국역증보문헌비고』 십여권 중의 두 권으로 되어 있어서 과학기술 고전으로 따로 활용할 기회가 적었다. 이 책이 한국천문학의 중요사료로 적절한 표제를 붙여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기회를 가졌더라면 좀 더 우리 학계와 전통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이해하려는 젊은 학자들의 눈길을 끌었을 것이다.

상위고의 역주 연구를 바탕으로 그가 착수한 다음 과제는 『서운관지』의 역주였다. 1980년대 후반에 박성래, 유경로, 나일성, 김기협, 전상운의 공동연구로 시작된 『서운관지』의 역주는 초벌 번역 해설의 형태로 『한국과학사학회지』 1989년 12월호에 인쇄되었고, 1990년부터는 유선생이 단독 연구로 그 일을 계속하였다. 1990년 12월, 제12권 제1호에 “서운관지의 번역과 해설 2. 관아”를 시작으로 1994년 12월 제16권 제2호에 5회에 걸쳐 『서운관지』 1권의 역주를 끝냈다. 그리고 나머지 작업을 계속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채 원고를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맡겼다. 가장 어려운 1권과 2권 중에서 1권을 끝내고 학회지에 발표한 것은 큰 진전이었다.

유선생은 연로하시고 건강이 조금씩 힘들어지는데도 여전히 꼼꼼하시고 착실한 역주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 그의 변함없는 학문 태도는 해가 갈수록 더해지며 조금도 느슨해질 줄 몰랐다. 1권의 역주를 끝내고 쓴 후기에서 우리는 그 한 면을 찾아 볼 수 있다. 그가 활용한 여러 사진들과 자료들의 역주서들, 그리고 고전 관련 서적에 대한 그의 논평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썼다.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 더 부언해야 할 것은 서운관지 속의 난해한 어귀가 위의 여러 해설서로서도 찾아 낼 수 없었던 것이 가끔씩 있었고, 이런 것들은 부득불 나 자신이 엉뚱한 해석이나마 붙여서 글을 이을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 주석에 더 많은 오류가 혼입되었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결국 이 서운관지의 주석과 번역은 이렇게 조잡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후학들은 나의 무천(거칠고 도리에 어긋남—필자 주)한 역주를 바로 잡는 데서부터 옛 천문학사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하는 작업을 계속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유선생의 학문적 태도를 엿보게 하는 글이다. 내가 그에게 원고를 부탁하거나 난해한 문장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할 때, 으레히 농담처럼 덧붙이는 말이 있었다. “원전을 또 찾으시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선생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것만으로 쓰셔도 충분하니까요.” 그러나 그는 중국 서점예를 꼭 가셨고,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에 가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곤 했다. 나는 그의 건강과 고령이 늘 조심스러웠다. 논문이 아니고 비망록으로라도 후학을 위해서 알고 계시는 한국천문학사 관련 연구 내용을 모두 남겨야만 한다고 여러 번 강권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드린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 한국 천문학 고전 총서를 낼 때에도 그 책들의 해제를 쓰느라 무척 고생한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 책들을 차근 차근 다 읽어낸 후에야 해설 원고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유선생의 학문을 이해하고 유선생의 뒤를 이을 우리 천문학 고전의 역주 연구를 할 수 있는 학자가 몇 사람만이라도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 커다란 발자취가 언제까지나 선명하게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상운: 전 성신여자대학교 이사장]

2-2. 마지막 선비

내가 유경로 선생을 처음 뵈은 것은 서울대 사대에 출강해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1970년이였다. 나는 그때 과학사를 강의했는데 이학부 강사여서 유경로, 정연태, 정창희, 이태녕 선생 방을 자주 드나들었다. 나는 늘 새 학문 과학사가 과학교육에 중요함을 호소하는 입장이었다. 유 선생님은 대학 옆 돌집에서 저녁을 사 주시며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했는데 과학사 얘기를 꺼내면 역사도 중요하지만 과학 자체를 알아야 과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다른 과학교육학자들과는 다른 의견이라 잊혀지지 않는다.

1973년에 시작해 8년이나 끈 침성대 논쟁을 통해 유 선생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유 선생님은 온건한 천문대 파였지만 토론과정에서 뛰어난 역사가의 모습이 뚜렷이 드러났다. 그때 이후 우리는 주로 학회 일로 자주 만났다. 유 선생님은 늘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좌중을 압도 하셨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의견이었다. 오고가며 알게 된 중국, 일본 학자들도 유 선생님을 깊이 존경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텃세가 센 한국 과학사학회가 유 선생님을 회장으로 모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유경로 선생님은 돌아가신 내 대학 은사 박홍규 선생님과 비슷한 데가 있다. 그리스 철학의 태두였던 박 선생님은 저술을 거의 남기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 분은 제자를 많이 가르쳤고 제자들이 강의를 녹음해 책으로 냈다. 유 선생님도 글을 많이 남기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키우셨고 후학에게 영향을 주셨지만 평소에 즐겨하신 말씀을 왜 녹음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후회막급이다. 박 선생님과 달리 유 선생님은 대작 중국 천문학사와 한국 천문학사를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있었다. 그 완성을 못 본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훌륭한 학문과 함께 더욱 돋보이는 것은 유경로 선생님의 사람됨이다. 유 선생님은 서양교육을 받았고 첨단과학을 공부하셨지만 유교를 높이 평가하고 실천하신 분이였다. 엄격한 유교집안에서 자란 내가 선생님을 좋아한 중요한 이유이다. 유선생님은 나무랄 데 없는 ‘개화한’ 조선시대 선비였다. 그 만한 선비를 다시 찾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내가 수몰을 앞둔 중국 삼협(三峽)을 여행하고 왔을 때 유 선생님은 그렇게 부러워하셨다. 그곳 역사에 통달하신 선생님 대신 엉터리로 보고 온 것이 부끄러웠다. 그나마 바쁘다는 핑계로 자세한 여행 보고도 못 드렸다. 서울대 병원에서 잠깐 찾아 뵈온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작년 여름 재일 교포학자가 유 선생님께 전하라 한 귀한 돌과 술을 시간이 안 맞아 미처 드리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다. 다시 간 일본에서 선생님의 부음을 들었다. 공교롭게 첫 기일에도 일본에 있게 되어 죄스럽기만 하다. 유선생님이나 나나 내세를 믿지 않으니 명복을 빌 수는 없으나 선생님의 가르침은 오래 남아 빛을 낼 것이다. [송상용: 한림대학교 사학과]

2-3. 유경로 선생 추모

1997년 11월 8일 외대(용인 캠퍼스)에서 우리 학회 가을 정기 총회가 열렸다. 그때 나는 그 동안 2년 임기로 내가 맡았던 한국과학사학회 회장 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도 하고, 또 그 사흘전(11월 5일) 작고하신 유경로 선생님에 대한 추억담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무언가 간단한 메모를 해 두었다가 인사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모든 것이 예정과는 달라져 버렸다. 사실은 그날 나의 회장직 사임 건은 예정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반년이 지난 지금도 회장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장자리에 대한 약간의 고뇌 때문에, 그날은 유교수님에 대한 생각조차 제대로 정리해 말해보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고 말았다.

그후 나는 그 메모지를 유교수의 책 『中國의 天文學』(전파과학사, 1985, pp. 246)에서 발견했다. 나는 총회하는날 이 책을 가지고 나가 퇴임의 인사말도 하고, 유교수에 대한 회상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책에 끼워 두었던 것을 생각해 낼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 메모에는 이렇다할 내용이 없음을 그 종이를 보면서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제서야 몇 차례 책상머리에 앉아 뭔가 기록해 보려했지만,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어서 적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막상 무엇인가 생각해 내야겠다고 작심을 하고 앉으니 별로 특별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던 기억이다. 내가 그 분께 가까운 정을 느끼지 못했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가깝게 느꼈던 나머지 별로 특별한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유선생은 내게는 물과도 같은 분이였다고나 할까? 별로 느껴지지 않는 분이였다. 당연히 내가 그 메모지에 적어 놓은 문구는 그저 “뛰어난 기억력”이라 하고, 이어서 “특히 일제시대 여러 지식인들의 이름과 살아가는 모양, 해방후의 여러 과학자들과의 교유 관계”라 해 놓고 다시 “기록을 부탁하기도 —”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또 “자상하고 제자들에 친절”이란 메모도 있다. 돌아가신 지 사흘 뒤—발인으로부터는 하루 뒤에 우리는 학회를 했으니, 그 직전의 기록일 것이다.

정말로 유선생의 기억력은 놀랍다고 나는 여러 차례 느꼈다. 가끔 우리는 함께 버스를 타고 여행한 일이 있었는데—나는 언제 갔던가를 기억하지 못할 지경이지만—여러 차례 옆에 모시고 앉아 여행한 일이 있다. 그때마다 구수하게 옛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땠던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말 모두가 기록해 두면 우리 나라 역사에 좋은 자료가 될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 나는 몇 차례나 그런 말

씀은 어떻게 메모라도 해 두셔야 후에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불행히 나는 그 내용 가운데 단 한가지도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없다.

유선생님의 공부에 대한 열정은 정말 놀랍고 젊은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이다. 특히 책에 대한 관심도 높고, 무언가 찾아보고 싶은 내용 때문에 필요한 책은 외국에 편지를 내거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라도 꼭 구해다가 읽어 보시곤 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처럼 여간해서 남에게는 책 부탁이라고는 하지 못하고, 뻔히 눈앞에 있는 책도 돈이 아깝거나 귀찮아서 구하지 않고 버티는 성격으로는 유선생의 그 열정이 그저 놀랍기만 했다.

나의 집 부엌에는 양쪽으로 큰 책장이 세 개씩이나 있고, 그 한쪽에는 책이 꽂혀 있다. 다른 한 쪽에는 아내가 쓰는 그릇 종류가 차 있고—그런데 바로 아내가 쓰는 그릇들은 넣은 찬장(점 책장)위에는 길게 책들이 꽂혀있고, 그 책들의 반은 바로 유선생이 주문해 사주신 『四庫全書』이다. 아마 10년쯤 전의 일일 터인데, 원광대 출판부와 서울 어딘가에서 이 대 전집을 영인해 팔고 있었다. 그 가운데 과학사에 필요할 부분만을 주문해다가 거기에 얹어 놓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다음 거의 꺼내 보지는 못하고 살아왔다. 아마 그 때 그 책을 사게 된 것도 유선생님께서 자극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유선생님이 그런 기회가 있어서 자기는 천문학 관계 여러 권을 사려한다 하면서, 어찌겠느냐고 물으시는데, 차마 사지 않겠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난다. 유선생님은 나보다 20년하고도 1년반 이상 먼저 나셨다. 선생님이 1917년생이고, 내가 1939년 생이니 스물 둘이 높다. 70줄에 들어선 선생님이 연구하시겠다고 『四庫全書』를 마련하는 판에 겨우 50정도의 젊은 내가 그걸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체말로 “쪽팔리는” 기분이 들어서 사게 되었을 것 같다.

유선생은 적어도 내게 너댓권의 책을 보내주시기도 했다. 이 경우 역시 어떤 책이었던지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한다. 선생님께서서는 내가 관심있을 거라면서 이것저것 보내주신 것인데, 아마 그 가운데에는 陳遵의 『中國天文學史』 여러권 가운데 한 책, 『中國大百科全書』 天文學편, 그리고 新城新藏의 『東洋天文學史研究』 등이 있음을 나는 기억한다. 나는 가끔 고마운 책을 얻었을 때는 앞장 안 쪽에 간단히 날짜를 적는 수가 있는데, 마침 『中國大百科全書』에는 “유경로 선생께서 얻음—1981. 9. 下旬 Europe에서 돌아온 직후 인사하러 갔다가—”라는 글이 적혀 있고, 『東洋天文學史研究』에는 “1984년 10월 8일 유경로 선생께서 얻음”이란 메모가 적혀있다. 이들은 모두 복사판을 만들어 주신 것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백과사전은 지금 꺼내보니 너털너털하여 내가 얼마나 그 덕을 보았던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물론 제대로 된 책이 아니라서 복사한 것을 두껍게 제본 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유선생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유선생은 서울대 과학사과정 대학원생들 가운데 희망자들을 집으로 오게 하여 천문학사 연구를 지도하셨다. 알고 싶은 것도 많아서 이것저것을 자료를 찾아 연구해 메모해 남기셨다. 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모아 논문 형태로 발표하는 일은 드물었던 셈이지만, 유교수의 깊이 있는 연구 결과는 여러 가지로 드러난다. 예를 들면 그는 潮水에 관한 옛 사람들의 이론을 찾아내 그에 대해 과학사학회에서 발표한 일도 있다. 또 가장 최근의 업적에서 그분의 연구체취를 잘 느낄 수 있는 것으로는 과학사학회지(1997. 6 & 1997. 11)에 난 “書畧瑣錄” 1과 2를 들 수 있다.

여기 나오는 『算學啓蒙』에 관한 조사만 해도 그분의 연구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의 유명한 수학책 『산학계몽』이 중국에서는 사라졌다가 한국에서 얻어간 것으로 다시 찍어 가지게 되었다는 유명한 사실에 대해 그 진말을 조사하기 위한 간단한 논문인 셈이다. 유교수는 여러 가지 중국 수학책을 구해다가 연구한 끝에 기어코 그 책이 정말로 중국에서는 사라졌었지만, 조선의 金始振의 醵刻本을 얻어다가 1839년에 다시 찍어내어 중국도 이 책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힌 것이다. 이어서 유교수는 지금 우리 나라에 남아있는 『산학계몽』을 조사하여 아울러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유교수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문제 하나는 <天象列次分野之圖>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서사쇄록”의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이다. 유교수는 이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를 짚어보며 그 최종결과를 밝히고 앞으로 후학들이 알아낼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교수는 자신의 제자로 직접 그 논문에 의견을 반영했을 朴成桓, 朴明順, 朴昌範 등의 논문에 주목하고 있다. 쓰다보니 하필 박씨들만 나열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글 마지막 부분에 있는 <世宗石刻天文圖>에는 “某敎授처럼 太祖石刻天文圖는 太祖때 준비되었다가 石刻은 실제적으로는 世宗 15년(1433)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p. 149)는 말이 있는데, 여기 某교수를 朴星來교수라고 사실대로 밝혔더라면 다시 朴씨 하나가 늘어날 뻔 했다.

아마 유선생님은 나의 이 견해에 동조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더구나 某敎授라고 호칭하고 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종 때의 이 기록에 대해 유교수가 어떤 특별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는 아직 나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유교수께서는 그 한참전에는 나의 또 다른 의견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지원을 해 주신적도 있었다. 그것은 日晷의 발음을 <일귀> 대신 <일구>로 하자는 내 주장에 대해 유교수께서 학술적인 뒷받침을 해주신 일이 있기 때문이다.

10여년전——아마 1985년——의 일이다. 하루는 중앙우체국인가 체신부인가의 어느 간부 직원이 우표 도안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우리 과학 문화재 몇 점을 도안하여 새 우표를 내겠다고 그 초안을 그려 가지고 온 것이었다. 그런데 양부일구와 자격루를 그린 그 그림의 설명으로 거기에는 “해시계” “물시계”라는 말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설명이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여러 가지 해시계와 물시계 가운데 이것들이니까, “양부일구” “자격루”라 한글로 표기하기를 권했다. 그 분은 일귀가 아니냐고 물었고, 나는 이왕이면 일구로 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한자를 많이 써서 보급하지 않아서는 동아시아의 한 나라로서 앞으로 일본과 중국에 뒤지게 될 것이 걱정되어 한자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만약 씹는 <구>로 발음하면서 그 글자 위에 날일(日) 하나 더 붙은 晷를 <귀>라 다르게 발음하는 일은 한자 교육에 불편만 가중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내 의견은 정부측에서 당장 문제가 되었다. <국사> 교과서에 그 발음이 ‘일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교부와 문화공보부에 의견을 묻게 되었고, 그 결과 문교부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미루고, 문화공보부는 문화재관리국에 그 논의를 떠맡았던 것이다. 아마 그때 이미 나는 문화공보부의 문화재 전문위원이어서, 그 회의에 초대되었고, 마침 유교수님도 오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 모임에서는 <구>로 해도 좋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내가 아무 관련도 없던 국사편찬위원회는 당연히 <귀>를 고집했다. 다시 그 우표 담당자가 이 사실을 전화로 알리기에 나는 간곡하게 제발 <구>로 써서 한자교육에 도움이 되게 해 달라고 당부했고, 우표는 “양부일구”란 표기로 나왔다.

유교수가 발표한 글 가운데 1988년 학회지에 실린 “日晷의 표에 대하여”(pp. 131-4)는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결과였다. 한 번 관심을 갖게 되어 의문이 생기면 끝까지 캐내어 밝히는 유선생님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우리 나라 우표에 “일구”란 표기를 가능하게 나를 도와주신 유교수께서 이 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해 별 말씀이 없으셨고, 나 역시 여쭈어 본 일이 없지만, 결론은 아무래도 좋겠다는 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귀, 규, 구—세 가지 발음 어느 것도 가능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시고도 한자교육을 위해 <구>라고 통일하자는 내 의견에는 동조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철저한 유교수의 연구태도는 여러 곳에서 느낄 수가 있다. 학회지에 연재했던 <서운관지> 번역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고, “서사쇄록” 역시 이를 증거해 준다. 함께 연구를 위해 답사나 조사를 할 경우에도 유교수의 그런 태도는 여실히 드러난다. 송상용 교수가 앞장을 섰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80년대 초에 대우재단에서 연구비를 얻어 과학문화재 조사를 한 일이 있다. 그 결과는 역시 <한국과학사학회

지> 6-1(1984)에 “한국의 과학문화재 조사보고, 1980-1985”로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그림의 여러 장이 바로 유교수께서 현장에서 꼼꼼하게 그렸던 것이라고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나처럼 그림이라면 천리 밖으로 달아나는 사람에게는 늘 그림을 잘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는 솜씨가 놀라웠던 기억이 남아 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인 추억을 몇 자락 생각나는 대로 남겨보고 싶다. 유교수와 내가 가까이 지낼 기회가 처음 온 것은 1983년 5월 일본 京都에서 열린 <제2회 韓日科學史세미나>에 부부동반으로 참석하면서 부터의 일이었을 것이다. 그때 우리 나라에서는 유경로 선생 이외에도 전상운, 송상용, 김용운, 박성래가 참가했는데, 이 가운데 우리 넷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했던 것이다. 김용운 교수만이 우리들 사이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면서 김포공항에 나타났던 기억이 엇그제 같다.—“도시락 갖고 파티에 가는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모임에서 우리들 못지 않게 부인들이 즐겼던 것 같고, 그래서 그후 우리는 부부동반으로 저녁을 몇 차례 같이 한 기억도 있다. 특히 유교수께서는 한 번은 무슨 연구비인지 우리가 나눠 드렸더니, 자신은 별로 역할도 없으시다면서 기어코 우리를 강남의 어느 중국식당에 초대했던 기억도 있다.

그 덕택에 우리 부부는 선생님 댁에 두어 번 들른 일도 있는데, 내가 목이 아파 휴직한 다음 언젠가에는 댁에서 탄 것이라면서 모과 말린 것을 병에 담아 건네주신 일도 기억에 남아있다.

이제 유교수님을 고인으로 추억하면서 나는 1984년말 이은성 교수가 쓰러지셨을 때를 생각하게 된다. 그날 유교수와 나는 소방서 앰불런스를 타고 나가 이은성 교수를 해화동 고대부속병원에 입원시켰고, 또 이교수 임종 사흘전인 86년 6월 9일 낮에는 정릉의 이교수 병상으로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드린 일이 있다. 그날 함께 모시고 갔던 유경로, 전상운, 송상용, 그리고 나 가운데 한 분이 다시 길을 떠나신 것이다.

유경로 번역이라 밝혀져 있는 『中國의 天文學』 안 표지에는 <朴星來 先生 譯者 謹呈>이란 유교수님의 글씨가 남아있다. 생각해 보니 이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유교수의 유일한 필적은 아닌 것 같은—유교수가 내게 분명히 편지를 한 번은 보내셨던 기억이 있는데, 어디 두었는지 찾을 수가 없다. 아마 그때 그 편지에서 내가 관심 있게 찾아내 소개한 朴安期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반년만에 우리의 선임 학회장 유경로 교수를 추억하면서 후배들에게 할말은 그분이 이미 써 놓은 말씀을 읽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書雲觀志 譯註 解說”을 일단락 하면서 1994년 8월 31일에 쓰신 말씀은 다음과 같다—“後學들은 이 나의 無舛한 譯註를 바로잡는데서 부터 옛 天文學史를 한층 더 깊이 理解하는 作業을 계속해 주기를 懇曲히 付託한다.” [박성래: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2-4. “참 선비” 유경로 선생

유경로 선생께 내가 처음 인사드린 것은 1977년 서울대에 부임한 직후였지만 선생과 보다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1986년 선생이 한국과학사학회 회장이 되시고 나서였다. 마침 그때 나는 학회의 간사 업무를 맡고 있었기에 자연히 그와 자주 접할 수 있었다. 당시 그는 이미 서울대를 정년퇴임한 지 열나가 지난 후였고 따라서 내가 아는 모습은 그의 만년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내게는 선생의 만년의 모습이 그야말로 아름답게 보였다. 가끔씩은 내 자신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늙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 선생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1년이 되었다. 작

년 늦은 가을 단풍 든 관악 캠퍼스에서 전화로 그의 화답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학계의 마지막 선비 한 사람이 사라지는구나하는 생각을 하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생전의 그의 모습은 내가 항상 기리는 우리 전통 속의 참 선비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우리 선생은 참 선비다운 학식을 지녔다. 그것은 동서양과 인문학, 자연과학 분야를 모두 어우러 넓었으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의 전문인 천문학과 천문학사에 대한 그의 지식은 더할나위없이 깊었다. 그의 차분하고 조용한 말씨와 온화한 인품도 이상적인 선비의 그것이었다. 그는 또한 거의 세속적인 욕심이 없어서 지위나 명예나 부를 초월하고 있었다. 그에게 한 가지 욕심이 있었다면 책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것마저 아주 절제된 것이어서 욕심이라고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선생에게 넘쳐났던 것은 강한 학문적 열정이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그것을 잃지 않았다. 나중 병으로 쇠약해진 후에도 그는 연구, 독서, 집필 활동을 계속했고, 학술행사에 참석하거나 젊은 학자들 및 학생들과 읽고 토론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후배 학자들을 끊임없이 독려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가까운 후배와 학생들을 불러 자신의 사후에 추진할 공부와 연구의 과제들을 당부하기도 했다.

선생은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기는 즐겼지만 많은 저술은 남기지 않은 학자였다. 자신이 알아낸 지식과 얻어낸 연구결과를 써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기를 즐겼다. 한국은 물론 중국의 전통 천문역법 및 우주론과 관련해서도 많은 독서를 통해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으면서도 그것들을 써서 발표하기 보다는 항상 더 많이 읽고 공부하는 일에 정력을 기울였다. 몇 년전 부터는 젊은 학자들과 중국 역대 正史들의 天文志, 曆志나 沈括의 『夢溪筆談』등을 함께 읽는 것을 즐겼다. 최근 그의 연구주제였던 한국의 전통 潮汐이론에 대해서도 특유의 세밀한 연구를 통해 전통 중국 潮汐이론에 대한 중국이나 일본 학자들의 그간의 연구 수준을 크게 뛰어 넘는 업적을 얻어낸 후 그것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일보다는 “아무래도 潮汐에 관련된 중국 사람들의 글을 더 읽고 더 비교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더 몰두했고, 결국 그 업적이 출판이 되지 못한 채 선생이 돌아가시고 말았다.

선생은 넓은 포용력을 지녀서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비판을 잘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선의로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리라고 신뢰할 수 있어서 편한 마음으로 무슨 이야기나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나는 그에게 여러 차례 그의 과학사에 대한 관점이 과학 연구자 출신 과학사학자에게서 흔히 드러나는 오류—현대과학의 시각에서 과거의 과학을 재단하는—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었지만 한번도 그가 그런 이야기를 언짢아 한 적은 없었다. 물론 그가 그같은 내 비판에 깊이 공감했던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자신과는 그 점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주 현대 과학적 기준으로 道家, 養生術, 煉丹術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었는데 그럴 때는 항상 “김선생은 달리 생각하겠지만 나는 아무래도……”라는 식으로 말머리를 꺼냈다. 또 벌써 몇 년 전서부터도 “이제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선생님이 이루어 놓으신 많은 연구 결과들이 사라져 버릴테니 어서 되도록 많이 써 놓으시라”는 나이 든 나에게 하기 힘든 말을 그에게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다.

동료와 후배들에 대한 선생의 자상한 배려, 특히 젊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도저히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다. 선생은 학생들이 쓴 글들을 받으면 항상 아주 꼼꼼히 읽고 아주 자세한 조언을 해 주었다. 물론 학문적 작업을 대하는 그 자신의 태도가 그런 조언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그의 전형적인 반응은 역시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문제, 혹은 관련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서점에 새로 나온 책들을 살펴보는 것을 매우 즐기던 그는 흥미있는 책이 보이면 항상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알려주시고 책 목록을 여러 부 받아 나누어주기도 했다. 때로는 “아무개가 이 책을 사러 오게 할테니 따로 봐 두라”고 서점에 미리 부탁해 놓기도 했다.

물론 나 자신도 그의 그같은 자상한 배려를 퍽 많이 누렸고 그가 타계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지금 그것이 지극한 행운이었다고 느끼게 된다. 항상 내가 연락드리거나 찾아뵙지 못하고 선생이 먼저 연락하고 자신이 찾아오면 된다고 하면서 부르시거나 찾아오셔서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던 선생. 그의 조언은 학문적인 일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일에 두루 미쳤다. 어떤 때는 아마 아직 내가 선생으로서 미숙하다고 느끼셨던지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아서, 내가 학생들을 너무 부드럽게만 대하는데—내 학생들이 들으면 믿기 힘들겠지만—그러면 버릇이 없어 지니 엄할 때는 아주 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선생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그가 병으로 쇠약해지면서 그같은 일이 좀 뜸해졌다. 그리고 그가 병석에 있던 기간 동안 나는 그를 별로 찾아뵙지 못했다. 물론 항상 바쁘다는 핑계가 있었고 쇠약해져가는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아프기도 했고 또 좀더 사실 줄 알았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퍽 후회가 된다. 마음 속 깊이 선생을 추도하며, 다시 한 번 우리 후학들이 그를 본받고 그의 뜻을 이어갈 것을 다짐해 본다. **[김영식: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2-5. 교육자로서 소남 유경로 선생님을 생각하며

이 자리는 소남 유경로 선생님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선생님을 회고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었을때, 저는 꼭 선생님에 대한 회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선생님께 학부때부터 배웠던 제자였다는 인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이 부족한 저를 그 동안 꾸준히 이끌어주셔서 현재의 위치까지 오도록 만들어 주셨고, 계속해서 한국천문학사를 공부해야겠다는 진로를 분명하게 가르쳐주셨다는 은혜를 생각하여,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남 선생님에 대해 다른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과학사에 관련된 많은 회고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소남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한국천문학사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국과학사학회에서 마련한 공식적인 자리이며, 이곳에서 하는 회고사가 다소 역사적인 기록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소남 선생님에 대한 저 자신의 개인적인 회고와 더불어 과학사가 보다도 평생 교사 교육에 몸을 담으신 교육자로서의 소남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뵈는 것은 79년 3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장소였습니다. 관악캠퍼스 24동 3층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첫 대면은 사실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어린 마음에 엄하신 할아버지같은 교수님처럼 보인 첫 인상은 분명히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서울대에 입학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유경로 선생님을 알지 못했던 것은 제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계열별로 입학했었고, 그 결과 1학년 때에는 소속된 과가 없이 교육자연계열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학년 동안 교양과정을 이수하면서, 단 한번도 지구과학 관련 교과를 공부한 적이 없었기에 선생님을 직접 뵈고 공부를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2학년에 진입하면서,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문학을 교수하셨습니다. 이 때 공부한 과목은 '지구과학개론' 이었는데 그 중 천문학 분야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이 때의 인상은, 당시 텔레비전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에 나오는 킹스필드 교수와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겉으로 보이는 풍채나 인상이 그러했고, 비록 성우의 말투였지만 말투마저도 비슷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엄하면서도 따뜻한 모습을 보이시는 점이 더욱 그러했습니다.

선생님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작명을 했지만, “휴머니스트 교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시간 수업이시면 3시간 이상 강의하시기, 천문학적 주제와 소재를 벗어나 인생관, 종교관, 역사관, 철학관 등을 역설하시는 모습은 선생님의 정년 이후, 대학이나 연구소 세미나실 및 선생님 자택에서 공부했던 한국과학사 강의 역시 계속되었던 선생님만의 특징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제가 이렇게 지금 대학에서 전임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한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지만, 한국과학사에 뜻을 두게 된 것도, 순전히 소남 선생님의 권유와 지도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시 학생은 누구나 그러했지만, 방황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었습니다. 사회는 우리를 편하게 한가지만 공부하게 권하지를 않았고,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절에 자칫하면 술 아니면 차가운 독방에서 세월을 보낼 뻔도 했었습니다. 많은 방황 끝에 82년 군복무를 마치고 선생님을 뵈었을 때, 이미 선생님은 정년하신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명예교수로 천문학 특강 강의를 맡으시면서, 당시 졸업반이었던 84년도의 2학기는 나에게 뚜렷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끔씩 말씀하시는 우리 나라 천문학에 대한 내용이 많은 관심을 끌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선생님의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부 논문으로 “삼국시대의 일식”을 작성하면서, 중국의 사서와 오필처의 『식전(食典)』을 선생님을 통해서 얻었고, 그 내용을 비교하면서 나름대로 어설픈 결론을 내려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선생님의 소개로 과학사학회의 여러 선생님들을 뵈게 되고, 학회에도 가입하게 되면서, 분명한 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한국과학사 연구를 평생의 작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정이지만, 저는 계속해서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하기는 힘들었기에, 낮에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 밤에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다시 10년을 보냈습니다. 보잘 것 없는 논문이지만 박사학위 논문을 선생님께 올릴 때 기뻐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전문대학이라도 좋으니 빨리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나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항상 강조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돈 욕심을 버려야 한다. 돈을 알면 공부를 못해.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조잡한 논문을 발표하지 말아라.”는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뵈는 영면하시기 열흘 전(바로 작년 이맘때)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병실의 책상에는 뻑뻑한 한자로 된 『중국천문학사』 책과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선생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도 안 보이셨습니다. 다만 할 일이 많은 데 시간이 적음을 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를 이제는 못 볼꺼야. 끝내야겠어. 열심히 공부하게…… 요즘 젊은이들은 성급하게 논문도 잘 만들어 내는데…… 글세, 그것도 좋은 일이지. 너무나 완벽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글을 못써. 그러니까 부지런히 발표할 필요도 있어. 그런데 말이야. 그래도 책이나 논문은 열 사람 밖에 보지 않아도 좋으니까, 좀 가치 있는 것을 쓸 필요가 있어. 그래, 열심히 공부하라고, 좋은 일이 있겠지.”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대략 이러한 말씀을 나눈 것이 내가 선생님과 나눌 수 있었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선생님께 인사를 올리고, 병실을 나와서 한참이나 혼자서 울었던 기억을 떠올리니 다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선생님께서는 학문의 귀중함과 학자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사람을 만나 결혼 주례를 모시러 선생님 댁을 방문했을 때, 지금의 아내에게 하신 첫 말씀이,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항상 가난하니까 각오를 단단히 해야해.”라는 것이 지금도 집사람에게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되어있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니, 다시금 고개가 숙여지며, 아직도 제대로 학문의 길로 들어서진 못한 제자를 탓하

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각설하고, 이제부터는 교육자로서의 소남 선생님께서 가지신 견해를 저 자신이 들었던 내용을 근거로, 이 자리를 빌어 잠시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께서는 학문적으로는 천문학에서 역사학으로의 변천 과정을 거치셨고, 그러한 것들을 증명할만한 몇 가지 문건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지구과학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셨던 선생님의 교육관이나 평상시 강의 시간에 강조하셨던 휴머니스트적인 내용들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으며, 이제는 그 제자들마저도 차차 기억하지 못하는 추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자리에서 저 자신이 회고를 통해서라도 소남 선생님이 생각하셨던 교육관이나, 인생관, 종교관 등을 간단히 단편적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지금부터 대략 5년 전인 94년 12월 15일에 지구과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교수나 연구자 및 현직 교사 등 10여명이 자연스럽게 모인 자리에서 2시간에 걸쳐 특별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후 선생님께서는 과학사에 관계된 모임에서 강연하신 일을 있어도 교육이나 선생님의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개해 올립니다. 이러한 내용은 소남 선생님의 다른 측면을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사범대학에 대한 분명한 식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통합사범대학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며 그 안으로서 사범대학과 기초대학(선생님께서 그렇게 호칭하셨습니다만, 이전의 문리대, 지금의 자연대, 사회대, 인문대)과의 협력 속에서 통합적으로 교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의 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의 경험에 의하면 선생님께서 공부하실 때 고등사범학교 학생들은 소학교 6년, 중학교 5년, 고등사범 4년으로 총 15년을 공부하는데 반하여, 일반 대학생들은 소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 대학 3년으로 총 16년으로 단지 1년 밖에 차이가 안나는 데, 사범학교와 일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실력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학이 독립되어서는 안되고 서울대에 통합되어 교사 교육을 실시해서 실력있는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범대학에서는 종합화된 서울대학 안에서 온갖 교육에 관한 것은 모두 다루어야 한다고 선생님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 가정교육 등을 포함하는 생각입니다.

시간 관계상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교육에 관한 모든 얘기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 자신이 당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녹취하여 두었으니 기회가 있으면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끝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며 회고를 마칠까 합니다.

“결론을 내자면, 여러분들은 너무 권위자를 믿지 말라.

논어에 ‘학이불사(學而不思)면 망(亡)이요’,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두워, 진리를 못 알아, 강의 그대로 받아들일 뿐 어두워, 자기가 생각해야 한다고.

‘사이불학(思而不學)’ 이면, 위태해, 어디로 가는지 몰라.

하늘이 무너질 것 아닌가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남 얘기하는 것을 배웠으면 그런 소리 안할꺼야.”

끝으로, 이렇게 글로나마 선생님께 다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선생님, 편히 쉬십시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여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학문과 학자의 길을 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면우: 춘천 교대]